

| 26일 Market Index | |
|--------------------------------|---------------------------------|
| 코스피 8411.21 (-519.09) | 코스닥 851.37 (-36.44) |
| 금리 (연이자율) 3.722 (-0.035) | 환율 (원/달러) 1535.80 (-6.90) |



m-커버스토리

중동전쟁·고환율·美 금리 인상론까지 하반기 ‘물가와의 전쟁’ 불안감

물가 외부변수 커져

물가 불안이 민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중동전쟁과 환율, 미국 통화정책 등의 가지지 않는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자물가 자극의 주 원인이다. 지난 4개월간 지속돼 온 중동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종전을 기약한다는 양해각서를 비롯, 이스라엘의 레바논 영토에 대한 공습은 계속됐다. 이달 하순에는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미군-이슬람혁명수비대 간 드론 공격·보복까지 난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골칫거리 중 하나가 원자재·원재료의 공급이다. 석유로 만드는 제품의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못하다. 수급 비정상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각종 수입 제품과 국내 재가공 제품의 가격이 뿔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흐르는 모습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사르바 지역. /신화·뉴시스

다행히 국제유가가 6월 중순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리터(1)당 2000원 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유가 폭등에 국내 산업계가 입은 타격은 이미 심각하다. 원자재·원재료 조달 비용이 크게 늘었고 석유류가 쓰이는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의 전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잠입은

언제든 무력 충돌로 변질 수 있고, 이에 유가의 재폭등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또다시 위반한 대가로, 미군 항공기가 좀 전에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관시설 및 연안 레이더기지 등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원래 자리가 어디였나 싶을 정도의 초약세다. 1500원대 중반을 넘보는 환율도 언제부터인가 거부감마저 무뎠다는 형국이다. 5만 달러짜리 어느 외국산 상품을 환율 1300원일 때 65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 1000만 원 넘는 돈을 더 내야 살 수 있다. 7690만 원까지 올라 있다. 같은 상품인데 우리 돈의 가치 하락이 빛은 겉과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계란 10구 5000원’... 정부, 1조 물가대책 발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매대 모습. 계란이 10구 가격 평균이 5000원을 넘기고 고등어, 수박, 상추 등 먹거리 물가 상승과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 차질로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폭염+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접 수입하는 등 하반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규모의 제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피지컬 AI’ 급부상, DP 동시발전 기회 삼성D·LGD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

LTPO OLED, 배터리 사용시간 늘려 산업·군사·의료 등 활용 범위 확대 극한온도, 외부 환경서 안정적 작동



LG디스플레이의 휴머노이드 디스플레이 ‘플라스틱(P)-OLED’ 제품. /LG디스플레이

피지컬 AI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도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신규 수요처로 떠오를 것이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저온다결정질리튬산화물(LTPO) OLED와 플라스틱 OLED(P-OLED) 등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경우 중대형 OLED 시장에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핵심 부품과 공급망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터페이스에 고화질·저전력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날 경우 OLED 채택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OLED는 피지컬 AI 시대에 적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LCD(액정표시장치)보다 얇고 유연해 자유로운 형태 구현이 가능해 로봇의 굴곡진 표면에도 적용하기 쉽

고, 높은 명암비와 뛰어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는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환경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극한 온도나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LTPO OLED는 전력 효율과 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LTP O OLED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피지컬 AI 시장 확대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2000억 자금조달 난항... 희생-청산 기로

홈플러스 운영의 일주일

법원, 30일까지 자금마련방안 요구 마련 못하면 28년만에 ‘파산 절차’

출범 28년 만에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운영의 일주일을 맞았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28일(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등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발송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기한 내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출범 28년 만에 기업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자금 조달을 둘러싼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DIP 대

출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메리츠 측은 MBK파트너스가 이미 보증을 선 금액에 해당하는 1000억 원만 의결했다. 메리츠는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 및 사채 출연을 인출 조건으로 내걸며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측은 함께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그룹은 파산 시 사경매를 통해 대출 원리금과 이자 1조5600억원을 1순위로 가장 먼저 회수하게 되어 1조8000억원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홈플러스 내부의 고통은 심화하고 있다. 이미 SSM 사업 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을 매각해 1200억 원을 조달했으나 체불된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을 총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6월 임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만7986명이었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만5398명으로 감소하며 올해 들어서만 2500명 넘는 직원이 퇴직했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1만여 명의 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입점점주 등 수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안팎에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홈플러스 한미음향협회와 협력사, 입점점주 등 1만 1480명은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으며, 홈플러스 일반노조도 본사와 공동입장문을 내고 “희생연장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질서 있게 자산정리가 이뤄진다면 부채 변제는 물론 회생도 가능하다”며 정부 도움을 요청했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법원에 회생절차 가결 기한을 9월까지 2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도 노조의 정의 투쟁에 동참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무기한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 “법원 청산절차가 현실이 되는 순간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부를 향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증권 간 갈등 중재,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신명 이근태, 정청래 범민주진보연대에 “당대표 출마 위한 정치적 메시지” /사진 뉴시스
▲홍준표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어...반도체 단지 반대 안 해”

▲전주 찾은 송영길 “민주당, 전북 지선승리보단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
▲보훈차관,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운영 현장 점검

▲민주당 당권 경쟁 신경전 가열...‘코어 이탈론’까지 등장
▲오세훈, 반도체 호남 투자에 “아마추어 정치, 프로 9단 훈수”